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2. 13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• 주종완 과장, 전 진 사무관, 김경현 주무관 • ☎ (044) 201-4138, 4139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-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‘중대 오류’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- ‘활주로 최적화’는 공항입지 평가 과정에서 **환경 훼손을 최소화** 시키고, 공항으로서의 역할·기능을 높이기 위해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미세조정하는 기술적·전문적 분석 절차입니다.
 - ‘비행장시설(활주로) 설계 매뉴얼(국토교통부 예규)’에서도 활주로의 배치, 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행장 부지와 그 주변 지형, 환경적 고려 등 관련 요인들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‘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’, ‘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 행동’이 2.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공항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이고,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2.14일 도민설명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겨레, 2.12) >

- 제주제2공항 입지 선정 때 중대 오류 있었다
 - ‘신도2’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중에 바뀌어 순위가 뒤집힘
 - 성산 후보지 선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음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